부산 종교화합 중심에 불교가 있다

정여 스님 공동善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취임
심산 스님, 열린종교시민대학 주도하고 강의도

3월 8일 열린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장 이 · 취임식에서 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여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월 5일 부산의 새날 교회.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이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해로 7기 째를 맞이한 열린종교시민대학 강의가 있던 날 심산 스님은 새날 교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3월 8일 부산의 6개 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부산시청 동백홀을 가득 메웠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2대 대표회장으로 정여 스님(여여선원장)이 취임한 이날, 스님, 원불교 교무, 신부, 목사 등 종교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를 보냈다.

최근 열린 이 두 행사는 부산 종교계가 지금 종교 화합의 꽃 피우기에 한창임을 잘 말해준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물론, 젊은 성직자들이 종교를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에 나섰고 그 흐름에 평신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

부산에서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움직임은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 종교계에서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목사는 "타 지역에 비해 부산에서 종교간 대화 운동이 활발한 이유가 바로 불교에 내재된 사상적인 다원성과 포용성에 기인한다"며 종교 화합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7기를 맞은 '열린종교시민대학'의 경우 심산 스님을 중심으로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등의 젊은 성직자들이 모인 열린종교모임이 주최하며 사찰, 성당, 교회 순으로 돌아가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3개월간 진행되며 5개 종교(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의 성직자가 강사로 나서 2주씩 강의함으로써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형식적인 교리 이해에 그치지 않고 화합과 교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종교인 축구대회를 계획 중이며, 홍법사에서 열리는 8기 열린종교시민대학은 교리보다 감성과 문화로 소통하는 열린 종교,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계춘 신부에 이어 정여 스님이 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공동선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의는 2003년 반여성당에서 발기인 모임을 가진 이후, 6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공동선 추구라는 큰 목표아래 종교음악회, 3 · 1절과 8 · 15 광복절 기원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다.

뿐만 아니라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종교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성당, 교회, 법당 등에서 음악회를 열며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각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앞으로 공동선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착한 마음 갖기'라는 운동을 펼치며 각박해지는 심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1995년 창립된 부산종교인평화회도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공동선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장 정여 스님은 "종교는 세상을 맑히는 샘물과 같다"며 "종교인들이 뜻을 합쳐 세상의 혼탁함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불사 회향 눈앞

신행 보금자리 우리손으로

부산 번화가인 서면의 한 건물 옥상. 40평 규모의 기본 골조를 마무리한 조립식 건물이 들어섰다. 아직 외부 골격만 갖춘 상태로 공사가 한창이지만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법당으로 사용될 공간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서면에 부산불교실업인회 회관을 마련한지 3여 년 만에 법당 불사를 발원하고 올 1월부터 3개월째 회원들의 정성과 참여로 불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서면의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의 모습.

이달 하순 준공 예정
문화강좌 등 열린 공간
신행단체에 무료 대여
창립 15주년, 장학사업도

부산불교실업인회는 1991년 2월 故 김정태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108명의 실업인들이 모여 창립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발원하며 창립된 부산불교실업인회가 그동안의 숙원사업이던 회관 마련의 꿈을 이루자 내친 김에 회원들의 신행과 수행을 위한 법당 마련까지 시작한 것이다.

빠르면 3월 하순에 준공될 이 법당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신행과 수행의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꾸며진다. 불교용품, 불상, 불단 제작을 하는 회원이 내부 장엄을 맡고, 외벽 골조도 회원과 회원의 지인들이 맡아 '회원들이 직접 건립한 법당'이라 의미를 더한다.

월례 법회 등 회원들을 위한 법회 공간이라는 기본 목적 외에도 법회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신행단체에 법당을 무료로 대여하게 된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다는 입지적 조건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문화 강좌와 법회 등을 개설, 법당의 활용 폭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에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처님 도량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다.

김윤환 회장은 "회관 인근에 사무실이 많은 만큼, 바쁜 업무로 산사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법당에 들러 마음을 돌아보면서 불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도심 건물에 세워진 옥상 법당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4년 사무국을 회관내로 옮긴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법당 개원과 함께 김윤환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3월 24일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계획중인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박수관 상임부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대사회적인 역할 증대에 나서게 된다.

많은 회원들이 드러나지 않게 불사에 보시하고 이웃을 돕고 있지만 부산불교실업인회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서다.

IMF로 대부분의 실업인들이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원들은 부처님의 법대로 살며 고요하고 여여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매월 열어온 월례법회에서 들었던 부처님 가르침을 기업 경영에 접목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온 덕분이다. 비온 뒤 땅 굳는다는 속담처럼 부산불교실업인회의 신심은 IMF라는 역경을 딛고 번화가에 우뚝 솟은 법당만큼이나 견실해지고 있다. (051)818-9914

천미희 기자

"모든 이에게 안락함 주는 공간 되길"

밀양 정토사 효심추모관 3일 개관식 봉행

밀양 정토사(주지 묵화)는 3월 3일 밀양 삼랑진읍에서 최신 납골시설을 갖춘 효심추모관 개관식을 봉행했다(사진).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식은 경과보고, 인사말, 개원 테이프 절단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묵화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토공원 효심추모관은 국가 시책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정성을 다해 불사를 진행했다"며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경상남도와 생활협동의료법인 허가를 얻은 상태이므로 추모관, 노인전문병원, 법당 등을 갖추고 죽은 이나 살아있는 이 모두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묵화 스님은 그동안 효심추모관 시공을 맡아온 (주)산양종합건설 최칠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효심추모관은 대지 3만5천 평에 납골당 부지 3000평, 건평 1500평 규모로 납골 봉안기수는 2만5천 여기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올 10월 중으로 노인전문병원인 효심노인병원 기공식과 함께 법당 80평과 요사채 200평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055)352-9114 천미희 기자

불교TV 부산지사 개원법회

불교TV 부산지사(총괄국장 손정현)가 개원법회를 갖고 부산경남의 불교 소식 전하기에 본격 나선다.

불교 TV(대표이사 성우)는 3월 15일 오후 2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대성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을 법사로 불교TV 부산지사 개원법회와 함께 불교TV 미국 전역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사의 개원 소식은 한동안 불교TV 부산지사의 공백으로 불심의 도시로 대변되는 부산과 경남의 불교 뉴스를 접할 수 없었던 스님과 일반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051)467-3301 천미희 기자

반야원 지장경 강의, 21일 개강

범어사 직할포교원인 해운대 반야원(주지 목종)은 다른 불교대학에서는 접할 수 없는 지장경 강의을 연다.

2006년도 상반기 반야불교교양대학 교과 과정에 포함된 지장경 강의는 주지 목종 스님이 직접 강의한다. 입학은 3월 19일, 개강은 3월 21일이며 지장경 외에도 기초 교리, 초발심자경문 등의 과정도 개설된다.

주지 목종 스님은 "지장경은 집을 지을 때 터전에 해당되는 경전"이라며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보살이며 기본이 되는 보살이므로 대원본존이라고 부르는 만큼 지장경에 대한 이해는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051) 701-5655 천미희 기자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부산불교교육원 수강생 모집

1년 6개월간의 공백기를 극복하고 2005년 11월 10일 다시 문을 연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이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제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과 과정은 제35기 불교입문자 과정(6개월), 제 1기 불교학과(1년), 경전과정으로 선으로 본 금강경(6개월), 제1기 다도과정으로 마음다루기와 다도(3개월) 등이 개설된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靈木之等

7천년된 靈木(영목)의 신비함을 한 알 한 알
부처님 염주에 담았습니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합격, 승진 기원, 무병장수 부처님 전에 영혼이 담긴 靈木염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지니고만 다녀도 액운을 물리칩니다!

靈木(영목)이란 神木(신목)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四川省 岷江 유역에서 발견된 약7천년된 고목이 홍수, 지진 등 자연변화를 거쳐 진흙 속에 묻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모양이 기이하지만 나무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다. 靈木은 지구상에 한곳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나무로 영원히 재생하지 못하므로 더욱 진귀함을 느끼는 것이다.
靈木의 은은한 향은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며 氣를 도운다고 하여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靈木을 소유함으로서 富(부)를 얻고 무병장수 한다고 하며 생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중국 四川省 '영목예술수집센터'에서는 '고궁박물원', '중국수집가협회', '중앙미술학원', '사천사회과학원' 등 20여명의 저명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靈木의 과학성, 학술성, 문화성, 예술성을 전문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靈木은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약 2m 정도의 조각품을 현지에서도 수 억원에 호가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법인(法印)과 염주를 만들어 지니면서 잡신을 쫓고 정기를 맑게 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여 부적(符籍)처럼 소장한다고 한다.
불기(佛紀)2250년 석탄일(釋誕日)을 맞아 국내 최초로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佛子)님 몇 분께 현지에서 靈木으로 수(手) 제작한 백팔 염주와 단주를 바칩니다.
靈木 염주로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만사형통하시고 무병장수,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靈木으로 佛事를 하시거나 특별한 수 공예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도 해드리며 중국 현지 발문도 가능합니다.

백팔염주1, 단주1, 원목 보관함1, 실크주머니1, 성분 분석표1

靈木佛事推進協會(영목불사추진협회) 대표전화 02)3445-8856